Anna's Archive 사건으로 본 미국의 불법복제 사이트 집행 동향

정윤경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Ⅰ. 들어가며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불법복제 사이트는 개별 저작물을 직접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색인하고 토렌트 및 미러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는 '섀도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1]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2] 애나스 아카이브(Anna's Archive, 이하 'Anna's Archive')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rary Genesis), 지라이브러리(Z-Library) 등 기존 섀도 라이브러리의 자료를 통합·미러링하여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의 도서와 학술자료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이하 'AAP') 소속 13개 출판사는 애나스 아카이브(Anna's Archiv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월 법정손해배상 및 침해자료의 폐기와 함께, 도메인 등록기관과 관련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국에서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도메인 등록·서비스 제공 등 사이트의 기술적 기반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민사상 권리구제 수단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Anna's Archive 사건의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불법복제 사이트 규제 및 집행 동향을 분석한 후 국내법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섀도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집된 도서와 학술논문 등을 검색·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 저장·유통 체계를 의미한다(Joe Karaganis (ed.), Shadow Libraries: Access to Knowledge in Global Higher Education, MIT Press, 2018, pp. 1-9).
2. Joe Karaganis (ed.), Shadow Libraries: Access to Knowledge in Global Higher Education, MIT Press, 2018, pp. 25-52, 〈https://mitpress.mit.edu/9780262345705/shadow-libraries/, (최종방문 2026. 7. 25)〉.

Ⅱ. Anna's Archive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Anna's Archive(이하 '피고')는 2022년 기존 불법복제 사이트의 자료를 보존·통합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후, Z-Library와 Library Genesis 등에 축적된 자료를 복제·색인하여 제공하였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검색하면 자체 서버 또는 협력 서버의 다운로드 경로와 토렌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무료 이용자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하는 대신 기부금 명목의 유료 회원에게 고속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개발기업과 데이터 중개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의 도서와 학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에 Apress Media, LLC를 비롯한 13개 출판사(이하 '원고들')는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대규모로 복제·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2026년 3월 6일 Anna's Archive와 신원불상의 운영자들(Does 1-10)을 상대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3]

2. 법원의 판단[4]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5월 19일 피고들이 소송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궐석판결을 선고하고,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13개 출판사가 각각 제시한 10개 저작물, 총 130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당 법정 최고액인 15만 달러(한화 약 2억 2천만 원), 총 1,950만 달러(한화 약 286억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취득한 저작물과 그 일부를 포함한 침해 복제물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영구적 금지명령을 통해, 판결을 송달받거나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한 도메인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피고 관련 도메인을 등록 정지 등의 방식으로 비활성화하고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3.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Publishers File Suit Against Notorious Pirate Site Anna's Archive", Mar. 6, 2026, 〈https://publishers.org/news/publishers-file-suit-against-notorious-pirate-site-annas-archive/, (최종방문 2026. 7. 25)〉.

4. Apress Media, LLC et al. v. Anna's Archive and Does 1-10, No. 1:26-cv-01850-JSR, (S.D.N.Y. Mar. 19, 2026), 〈https://publishers.org/wp-content/uploads/2026/05/Annas-Achive-Default-Order-copy.pdf, (최종방문 2026. 7. 25)〉.

해당 도메인의 권한 있는 네임서버를 비활성화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호스팅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피고 관련 사이트 또는 침해 콘텐츠에 대한 호스팅 및 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명하였다.

III. 관련 사건과의 비교

Anna's Archive 사건은 동일 피고의 데이터 스크래핑 책임을 다룬 OCLC 사건 및 섀도 라이브러리에 대한 형사집행 사례인 Z-Library 사건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불법복제 사이트 집행이 민사책임과 인터넷 인프라 통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OCLC 사건[5]

오씨엘씨(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이하 'OCL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서지데이터베이스인 월드캣(WorldCat)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다. OCLC는 Anna's Archive가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WorldCat을 반복적으로 스크래핑하여 약 2.2테라바이트의 서지데이터를 수집 ·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12일 미국 오하이오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OCLC는 계약 위반, 부당이득, 계약관계 불법간섭, 동산침해(trespass to chattels), 재산 전용(conversion) 등을 청구원인으로 삼았다.[6] OCLC는 궐석판결 신청 과정에서 약 530만 달러(한화 약 77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갱신된 궐석판결 신청에서는 금전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영구적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법원은 2026년 1월 15일 OCLC의 궐석판결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Anna's Archive의 계약 위반과 동산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영구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반면, 부당이득 청구는 저작권법상 권리와 구별되는 추가적 요소가 없어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

5.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v. Anna's Archive, Opinion and Order, ECF No. 58, at 8–13 (S.D. Ohio Jan. 15, 2026).

6. 계약관계에 대한 불법 간섭(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relations)은 Anna's Archive가 OCLC와 이용기관 사이의 계약관계를 인식하면서도 WorldCat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 · 배포하여 그 계약관계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에서 제기되었으며, 동산침해(trespass to chattels)는 반복적인 자동 접속과 대량의 데이터 수집으로 OCLC의 웹사이트가 중단되거나 접속 속도가 저하되고 서버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그리고 재산 전용(conversion)은 OCLC가 구축 · 관리해 온 WorldCat 데이터에 대한 지배 및 이용 이익을 Anna's Archive가 권한 없이 침해하였다는 취지에서 주장되었다(OCLC, Inc. v. Anna's Archive, No. 2:24-cv-144, Complaint, ECF No. 1, paras. 120–142 (S.D. Ohio Jan. 12, 2024); Opinion and Order, supra note 5, at 10–12).

선점된다고 보았고, 계약관계에 대한 불법 간섭 청구는 OCLC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실제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계약 위반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Anna's Archive가 대규모 섀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가명과 도메인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하고, 검색봇을 이용하여 약 1년간 WorldCat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OCLC가 이용약관을 현저하게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Anna's Archive의 전문성과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 행위에 비추어 이용약관에 대한 추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OCLC와 Anna's Archive 사이에 브라우즈랩 계약이 성립하였고,[7] Anna's Archive가 WorldCat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 저장 · 배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Anna's Archive와 그 대리인 · 사용인 · 직원 · 대표자 및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행위하는 자에게 WorldCat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거나 수집하고, 이를 이용 · 저장 ·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Anna's Archive가 보유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WorldCat 데이터의 모든 사본을 토렌트 파일을 포함하여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한편 OCLC는 갱신된 궐석판결 신청에서 금전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금전배상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2. Z-Library 사건[8]

Z-Library는 2009년경부터 운영된 대규모 전자책 공유 사이트로, 1,1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제공하였다. 미국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작자나 출판사의 허락 없이 복제 · 배포된 저작물이었고, 일부 도서는 출간 직후 무단으로 게시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검찰청은 Z-Library의 운영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의 안톤 나폴스키(Anton Napolsky)와 발레리야 에르마코바(Valeriia Ermakova)를 형사 저작권 침해, 유선 ·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wire fraud)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였다.

---

7. 브라우즈랩(browsewrap)은 이용자가 별도의 동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의 이용 자체를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다만, 명시적 동의 절차가 없는 만큼, 이용자에게 약관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실제 인식(actual notice) 또는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notice)이 있었는지가 계약 성립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8. U.S. Department of Justic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ctivities by the Executive Branch-Fiscal Year 2023*, at. 3-4(May 7, 2024).

두 사람은 2022년 11월 3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달 16일 공소장과 형사고소장이 공개되었다.

이와 함께 법원 명령에 따라 Z-Library가 운영하던 약 249개의 상호 연계된 도메인이 압수 · 오프라인화되었고, 2023년 5월에도 추가적인 미러 도메인 압수가 이루어졌다. 다만 공개된 자료상 운영자들에 대한 본안 유죄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운영자에 대한 형사소추와 체포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메인 압수까지 병행함으로써, 섀도 라이브러리의 인적 · 기술적 운영 기반에 동시에 대응한 형사집행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3. 검토

세 사건은 적용 법리와 집행수단은 서로 다르지만, 불법복제 사이트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 · 유통과 사이트의 기술적 운영 기반까지 대응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OCLC 사건은 WorldCat 데이터의 스크래핑에 대하여 계약 위반과 동산침해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과 서버 · 전산 시스템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Z-Library 사건은 운영자에 대한 형사기소와 체포, 대규모 도메인 압수를 병행함으로써 섀도 라이브러리의 인적 · 기술적 운영 기반에 동시에 대응한 형사집행 사례이다. 이에 비해 Anna's Archive 사건은 저작물의 대규모 복제 · 배포에 대한 민사상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자료의 폐기뿐만 아니라 도메인 등록기관과 호스팅업체 등 관련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지명령까지 부과하였다.

이처럼 세 사건은 각각 계약법 · 불법행위법상 책임, 형사집행, 민사상 저작권 침해책임이라는 서로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하면서도, 대응 범위를 운영자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의 수집 · 유통과 사이트의 기술적 운영 기반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집행 동향을 보여준다.

〈표-1〉 미국의 주요 섀도 라이브러리 사건과 집행수단의 비교

	Anna's Archive 사건 (2026. 5. 19.)	OCLC 사건 (2026. 1. 15.)	Z-Library 사건 (형사절차 진행 중)
문제 행위	13개 출판사의 저작물 130종을 대량 복제 · 배포하고, 불법복제 자료를 AI 개발자와 데이터 브로커 등에게 제공한 행위	WorldCat 서지기록의 약 97.4%에 해당하는 2.2TB의 데이터를 자동수집하여 토렌트로 배포한 행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1,100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복제 · 배포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
주요 조치	130종 소송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총 1,950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명하고, 도메인 등록 · 호스팅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에 사이트 접근 차단을 명령함	WorldCat 데이터의 삭제와 향후 수집 · 사용 · 저장 · 배포 금지를 명하는 금지명령이 내려짐	운영자 2명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 · 기소하고, 약 249개의 관련 도메인을 압수 · 차단함
집행 방식	출판사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을 통한 궐석판결과 제3자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지명령	OCLC가 제기한 데이터 접근 · 이용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과 동산침해 책임을 인정	미국 정부가 운영자를 형사기소하고, 국제수사 공조와 도메인 압수를 병행
의의	운영자 책임을 넘어 인터넷 인프라와 AI 학습데이터 공급망까지 통제하는 민사집행 모델을 보여줌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계약법 · 재산법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수집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을 보여줌	운영자 체포와 도메인 압수를 결합하여 섀도 라이브러리의 인적 · 기술적 기반을 직접 차단한 형사집행 사례

IV. Anna's Archive 사건의 평가와 시사점

1. Anna's Archive 사건의 평가와 의의

Anna's Archive 사건은 거액의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자료의 폐기에 더하여, 도메인 등록기관 · 호스팅 사업자 등 관련 인터넷 기반사업자에 대한 금지명령까지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익명 또는 국외 운영자를 상대로 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사이트의 기술적 기반과 접근 경로를 차단하려는 집행방식을 보여준다.[9]

특히 이 사건은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제3자를 통하여 사이트의 접근성과 지속적 운영을 제한하였다. 이는 미국의 불법복제 사이트 집행이 사후적 손해배상 중심에서 기술적 기반에 대한 예방적 · 구조적 통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pplauds Sweeping Default Judgment Against Notorious Pirate Site Anna's Archive", 2026. 5. 20, 〈https://publishers.org/news/association-of-american-publishers-applauds-sweeping-default-judgement-against-notorious-pirate-site-annas-archive/, (최종방문 2026. 7. 25)〉.

또한 Anna's Archive가 AI 개발기업과 데이터 중개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의 도서와 학술자료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섀도 라이브러리가 일반 이용자를 위한 불법복제물 유통망을 넘어 AI 학습데이터의 공급경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 배포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셋의 유통과 이를 활용한 AI 개발 과정까지 집행의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궐석판결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체적 기술구조와 자료 제공방식, 공정이용을 비롯한 피고의 항변, 제3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섀도 라이브러리나 AI 학습데이터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익명 · 국외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집행수단이 손해배상에서 인터넷 인프라 차단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내법상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접속차단제도와 긴급차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시정권고하는 방식이고(저작권법 제133조의3), 긴급차단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선 접속차단을 명한 후 심의를 거치는 방식이다(같은 법 제133조의4). 그러나 차단된 사이트가 대체 도메인이나 미러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도메인마다 심의와 차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nna's Archive 사건은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사이트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 차단조치를 우회하는 후속 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주체, 제공 콘텐츠, 서버 이용관계, 웹사이트 구성 및 도메인 운영방식 등을 종합하여 기존 사이트와 실질적 동일성 또는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보충심의를 통해 차단조치를 대체 도메인과 미러사이트까지 신속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메인 등록기관, 호스팅업체, 검색 · 광고 · 결제사업자 등 인터넷 중개사업자의 협력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각 사업자의 기능, 침해행위와의 관련성 및 기술적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메인 이전 제한, 호스팅 중단, 검색 노출 제한, 광고 · 결제 차단 및 관련 자료의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유형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익명 또는 국외 운영자에 대한 증거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메인 등록정보, 서버 접속기록, 결제 · 광고수익 자료 등 운영자의 신원과 침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보존 · 확보하고, 해외 수사 · 집행기관 및 도메인 · 호스팅 · 결제사업자와의 정보공유와 집행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침해의 명백성 · 중대성 · 반복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오인 차단이나 과잉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지, 이의제기, 정기적 재검토 및 사법심사 등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나가며

이상으로 Anna's Archive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불법복제 사이트 집행방식의 변화와 국내법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은 대규모 ·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거액의 법정손해배상과 침해자료의 폐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사업자에 대한 금지명령까지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도메인 · 호스팅 등 사이트 운영의 기술적 기반과 접근 경로까지 차단하려는 미국의 집행 기조를 보여준다. 또한 불법복제 자료가 AI 개발자와 데이터 중개자에게 대량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섀도 라이브러리와 AI 학습데이터 공급망의 연계라는 새로운 쟁점도 드러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궐석판결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구조, 공정이용을 비롯한 피고의 항변, 제3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법적 근거와 범위가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적인 실체법상 판단기준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불법복제 사이트와 대체 도메인 · 미러사이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사이트 차단절차를 정비하고, 도메인 등록기관 · 호스팅업체 · 검색 · 광고 · 결제사업자 등 관련 중개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익명 또는 국외 운영자에 대한 증거확보와 국제공조를 확대하되, 통지 · 이의제기 · 정기적 재검토 및 사법심사 등 절차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집행의 실효성과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